

# “지방대 3곳 중 1곳 신입생 70%도 못 채운다”

### 대학교육연구소, 통계청 인구추계 등으로 본 2024년 추산

#### 4년간 7만347명 감소...호남 22.4%로 최대 대학 전체 정원 10% 축소 등 특단 대책 필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외 지방대 3곳 중 1곳이 4년 뒤 학부 신입생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일반·전문대 등 지방대학 220개교 중 2024년 신입생 충원율 95%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통계청의 지난해 3월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교육통계연보를 활용, 전국 17개 시도별 고교 졸업자 수와 증감률을 산출했다. 이어 4년제·전문대 여부, 학생 선호도, 대학평가 등을 통해 대학별 입학인원 감소지수를 설정했다. 이를 지난해 대학별 정원 내 입학자 수에 반영해 매년 입학자 수를 추정했다.

추계 결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입학 가능 학생 수는 총 7만 3475명(감축률 16.1%)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대학 3분의 1이 넘는 85곳(34.1%)은 신입생 충원율 70% 미만으로 예측됐다. 학생을 절반도 못 뽑는 ‘50% 미만’ 대학도 26곳으로 11.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같은 기간 7곳을 제외한 119곳(94.4%)이 70% 이상 충원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광주·전남·전북이 22.4%로 가장 많으며 강원도가 22.3%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경북이 20.7%, 부산·울산·경남이 20.3%로 나타났다. 대전·충북·충남 13.7%, 제주 13.5%, 수도권 11.8%였다. 4년 안에 충청·제주 권역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입학 가능

학생 수가 20% 이상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생수 감소가 지방대학 위기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운영난에 빠지게한다는 것이다.

추계를 반영하면 지방대학 학부 등록금 수입은 2018년 대비 2024년 4분의 1(25.8%) 가까이 줄어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등록금 수입은 전체 사립대학 재정의 53.8%에 달한다.

이에 따른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36.1%, 부실대학 폐교 24.5% 등이 제시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정원을 1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를 감축하면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3만명 정도만 줄어 미충원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이 아닌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내국세의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올해 1월 지역사회 산업

수요에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학에 연 최대 48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자체가 예산 30%를 마중물로 지원하는 구조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참여정부 때 누리과정 사업을 통해 1년에 1조원씩 총 5조원을 지원했음에도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등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남구청 'AI 활용 평생교육' 호응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과 광주 남구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AI 활용 평생교육'이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단은 남구청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공지능(AI) 활용 평생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초등학교 코딩교실', '찾아가는 지식재산 아카데미 SW 체험교육', '조손 가정 및 저소득계층 학부모-학생 대상 '스마트초콜릿 코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 초등교사 신규채용 900명 감축 반발

### 교원단체 “과밀학급·농산어촌 문제 외면”

교육부가 초등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여 현재보다 연 최대 900명을 덜 뽑겠다는 채용계획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과밀학급’이 여전히 많고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농산어촌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논평과 입장문 등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전교조는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줄이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고 사회적 협의를 이어나갔다는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도 “학생이 줄어 교사 1인당 학생 수

가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외면하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별기로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는 내용의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원단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업과 방역 업무를 동시에 도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소위 ‘콩나물 교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

하로 해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도심의 과밀 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는 이를 경제 논리로 통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규교원 수급을 줄이면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교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이 무색하게 기간제 교사 비율은 중등에서 7명 중 1명에 달한다”며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법적화된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호남대, AI빅데이터연구소 연구사업 박차

### 정보통신연구소 명칭 변경 세미나 등 연구 기능 강화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인공지능(AI)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연구소를 AI 빅데이터 연구소로 개편하면서 세미나 개최와 논문 발간 등을 통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남대는 지난 6월 ‘프로젝트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한 AI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AI교육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7월부터 정보통신연구소를 AI 빅데이터연구소로 개편했다.

AI빅데이터연구소는 AI융합/AI연계 응용기술(의료, 헬스케어, 스포츠 등), 빅데이터 및 응용(통계, 플랫폼 포함), AI 교수법 등 IT기술전반(IoT, 임베디드, 클라우드, 로봇, 드론, 이동통신 등)에 걸쳐 교육 및 연구 등을 집중하게 된다.

AI빅데이터연구소는 AI융합/AI연계 응용기술(의료, 헬스케어, 스포츠 등), 빅데이터 및 응용(통계, 플랫폼 포함), AI 교수법 등 IT기술전반(IoT, 임베디드, 클라우드, 로봇, 드론, 이동통신 등)에 걸쳐 교육 및 연구 등을 집중하게 된다.

합교육을 활성화하는 AI교육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I빅데이터연구소는 이와 함께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3째주 금요일에 AI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호남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총장 직속으로 ‘AI중심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AI캠퍼스 구축 ▲AI기초융합 교양 과목 개발 ▲전공 교육과정 AI교과목의 무개설 ▲모든 학과 1개 이상 AI연계(융합) 전공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 교육과정을 마련해 전교생이 15학점 이상의 AI교과목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1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대학 최초로 AI 융합교육을 위한 AI캠퍼스를 구축했다.

호남대학교는 정보통신공학 분야의 신기술 정보교류, 지역 특성에 알맞는 지방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정보통신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백만 호남대 AI빅데이터연구소 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IT기반의 연구소를 AI빅데이터 연구소로 개편했다”면서 “AI 융합인재 양성과 AI 캠퍼스 구축 등의 내실화하는 SW개발 실습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AI교육장으로, AI빅데이터 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든 학문분야에 AI 융

합교육을 활성화하는 AI교육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호남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총장 직속으로 ‘AI중심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AI캠퍼스 구축 ▲AI기초융합 교양 과목 개발 ▲전공 교육과정 AI교과목의 무개설 ▲모든 학과 1개 이상 AI연계(융합) 전공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 교육과정을 마련해 전교생이 15학점 이상의 AI교과목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1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대학 최초로 AI 융합교육을 위한 AI캠퍼스를 구축했다.

호남대학교는 정보통신공학 분야의 신기술 정보교류, 지역 특성에 알맞는 지방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정보통신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백만 호남대 AI빅데이터연구소 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IT기반의 연구소를 AI빅데이터 연구소로 개편했다”면서 “AI 융합인재 양성과 AI 캠퍼스 구축 등의 내실화하는 SW개발 실습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AI교육장으로, AI빅데이터 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든 학문분야에 AI 융

## 도 교육청,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준비 박차

지역 교육계가 직업계고의 학점제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맞 학과를 개편하는가 하면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직무중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로 학점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나주시 스페이스코워 전남혁신점에서 전남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학교지원단 20명과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CS 기반 교육과정 학교 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NCS 기반 교육과정 지원(교육부 연구사 김용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광주교육청 장학사 김대들) ▲전문교과 II 실무과목 교수·학습방법

(고흥영주고 교사 한정범) ▲전문교과 II 실무과목 평가의 실제(광주공업고 교사 김진아)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나이스 운영(삼일상업고 노숙희) 등 5개 주제로 운영됐다.

특히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해 직업계고 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법에 대한 연수의 효과를 높였다.

이현희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연수가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교지원단이 학점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여대 대학원, 전국 미용 중등교사 자격 연수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대학원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미용분야 현직 중등교사 36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등 1(2)급 중등교사(미용) 자격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자격연수는 교내 미용과학과를

중심으로 한 우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를 초빙, 오는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15일간 실시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격연수는 교내 미용과학과를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www.yhbeco.co.kr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